

번역시집 출판의 현단계와 그 전망

시장성 협소해 대부분 苦戰... 전문 독자층 형성 가능성도

‘시의 시대’라 명명됐던 80년대를 거치면서 무수한 시인·시집의 탄생과 함께, 문학에 있어 시라는 장르는 그 어느 장르보다도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의 몇몇 시집은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시집출판에 대한 출판사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독자나 출판사들의 이러한 시집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국내시에 국한된 것으로, 번역시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나와 있는 번역시집들은 거의 시리즈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낭만시’ 위주의 예전의 판에 박은 듯한 작가선정의 양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는 반면 아직 생존해 있는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시리즈도 있다. 또한 최근의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반영,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 제3세계의 시들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들도 적잖게 눈에 띄고 있다. 한편 단행본 형식으로 출간된 시집들은 개인전집이나 선집, 그리고 이른바 ‘테마시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전에서 현대시까지 다양한 시리즈물

시리즈물 중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민음사판 ‘세계시인선’. 74년 시인 고은씨의 역주로 「唐詩選」을 첫권으로 선보인 이래 지금까지 총 80권이 간행되었다. 키츠·휘트먼·롱펠로우 등 이미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한 시인들은 물론 당시에는 독자들에게 낯설었던 로르카·아이히·생 중 페르스 등의 시들과 함께 굴원·도연명·두보 등의 한시까지 망라하고

있는 이 시리즈는 그때까지 제대로 외국시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국내독자들에게 반가움과 동시에 신선함을 안겨주었는데, 저렴한 가격과 충실한 내용으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의 예비문사들에게는 지금까지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출판사측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번역 문제. 역자 대부분을 전공교수를 포함한 “시에 대한 감각이 있는” 번역자로 구성하고 원문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던 것. 지금까지도 꾸준한 판매부수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시리즈 중 보들레르·릴케 등의 시집이 비교적 많이 팔린 편이고 로트레아몽의 시집은 모만화의 인기로 힘입어 한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이 시리즈는 88년부터 기획이 중단된 상태인데, 제3세계와 일본시인들의 작품, 우리고전까지 폭을 넓히고 수록작품편수도 늘리는 한편 판형에도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감각에 맞는 후속시리즈를 계속 펴낼 계획이다.

민음사는 이밖에도 단행본 형식으로 발레리·엘리엇 전집을 비롯해서 보들레르·네루다의 시집을 간행하기도 했다.

정음사의 ‘러브 포엠’ 시리즈는 연전에 청소년용으로 출간했던 것을 장점을 바꾸어 88년 개정판으로 재간행한 경우. 현재 헷세·하이네·지브란·엘리엇 등 10권까지 나와 있는데 “고전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는 것이 정음사측의 기획의도. 「사랑은 모두 아름답다」 「사랑이 갖든 풍경」과 같이 사랑에 관한 시편들을 위주로 엮었다.

혜원출판사의 ‘혜원세계시인선’도 비슷한



성격의 시리즈물로, 파울 첼란이나 네르발 같은 현대시인들과 함께 중국고대·현대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향의 시들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24권까지 출간, 앞으로 뮐달린·하우스만 등의 시집을 계속 낼 계획으로 있다.

이밖에도 국일문화사, 공동문화사, 일월서각 등이 ‘세계시인선’류의 시집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이들 출판사의 시리즈들은 특정사조나 시기,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에게 친숙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몇몇 출판사들은 성격이 분명한 시리즈를 기획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대표적인 출판사가 열음사와 청하.

열음사는 이미 80년대초부터 기존의 번역시집 시리즈와는 성격이 틀린 현대시인들의 시리즈를 기획, 특히 러시아·일본·스페인의 현대시들을 국내독자들에게 선보임으로써 당시

‘의미있는’ 기획으로 평가받았다. 앙리 미쇼·잉게보르크 바하만·파울 첼란·다무라 류우이찌·예세닌·에른스트 안들·아흐마토프·네루다·라이너 쿤체·이브 본느프와 등 20세기 시인들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에는 아이칭 같은 현대 중국시인도 다루고 있다. “기존의 앤솔로지류의 번역을 과감히 탈피하여, 위험부담이 크더라도 현대의 중견시인들을 중심으로 각 작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조명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의 의도였다”고 편집부장이 정주씨는 밝힌다.

청하의 ‘세계문예시인선집’도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현대시인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테드 휴즈·실비아 플라스 등 미국의 대표적 현대시인을 비롯해서 파울 첼란 같은 전후 현대 독어

컬러에화집

돈이 보낸 편지

이익용 지음



돈이 보낸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의 메시지들.
진실은 단 한 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예화 89편이 있습니다.

(150쪽 ₩ 2,800)

● 칼럼집
● 고독이라는 교만
● 212쪽 ₩ 2,500

● 에세이집
● 내 놀던 옛동산
● 148쪽 ₩ 2,000

● 칼럼집
● 찢어진 우산으로 하늘을 가리고
● 220쪽 ₩ 3,300

● 독집 대림기획
● 전화 : 02-275-5296

권 시인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프레베르·프랑시스 푸주·넬리 작스·옥타비오 빠스·칼 크롤로브·밀레이 등 현재 15권까지 나와 있다. 특히 바하만의 시집 「소금과 빵」은 열음사판 바하만 시집인 「장미의 벼락 속에서」와 함께 인기를 끌면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계속 소련관계서적만을 고집하고 있는 열린책들의 '소련현대시인' 시리즈는 그 '전문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야 코프스끼의 「내가 아는 한 노동자」를 출발로 빠스페르나코·블로그·예푸뚜센코·보즈네센스끼 등 현재 5권이 출간되었고 앞으로 예세닌·야흐마토파·즈베파에바·만젤리쉬탐의 시집이 계속 출간에 정으로 있다. 20세기 전후에 태어나 혁명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시세계를 보여주는 이들 소련현대시인들의 작품들은 톨스토이, 도스토예프키로 대표되는 러시아 문학에 이은 현대 소련문학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번역문제에 있어 중역을 피하고 소련원전의 직접번역을 원칙으로, 표기에 있어서도 원어발음에 충실하는 등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70년대와 80년대 초에 기획된 번역시집 시리즈들이 대부분 고전 위주였다면 이후의 시집들은 보다 '색깔있는' 시리즈를 기획, 현재는 나름대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한 편차 보이는 단행본시집

반면 단행본 번역시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시인들의 몇몇 시집이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시집출판에 대한 독자와

출판사들의 관심이 고조돼 왔지만,

그 관심의 열기가 아직

번역시집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시리즈물로 구성된 번역시집들은

저 '시의 시대'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의 명시선' '영미의 명시선' '사랑의 명시선' 류의 앤솔로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각 출판사마다 편집이나 번역의 '질'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글세대가 읽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구어투 번역이 세로조판에서 가로조판으로 '외형'만 바뀐 채 청소년용으로 버젓이 등장하고 있기도 한데, 최근 간행된 단행본들은 비교적 충실한 번역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까지 띠고 있어 반가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의 단행본 번역시집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중의 하나는 국내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일련의 '개방'정책에 부응하여 동구권과 제3세계권 작가들의 시들이 차츰 소개되고 있다는 것.

81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실천문학사의 「팔레스티나 민족시집」 「아프리카 민요시집」

「폴란드 민족시집」을 비롯, 85년 희곡·소설 등과 함께 선보인 브레히트 시선집 「살아남은 자의 슬픔」(한마당)은 당시 대학가를 비롯, 그동안 이들 세계의 문학에 목말라 있던 국내 독자층으로부터 기대이상의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나 문학계 관련인구의 절대부족이라는 '필요조건'의 미비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본시집의 경우는 현재 단행본으로 나와있는 것이 문학세계사의 「일본여성시인대표 시선」과 청하의 「일본현대시선」 정도로 일본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해마다 발표되는 노벨상 수상작들 중의 하나로 번역되는 '노벨상수상시집'이 있는데 '단발성'으로 그칠 위험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노벨상이라는 권위가 주는 매력도 국내독자들에게는 크게 호소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고' 불구 전문독자층 형성대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집출판계에서 막상 번역시집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외로 왜소하고 아직도 '안정기'에 접어들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번역시집출판에 있어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우선 협소한 시장성이다. "시집자체가 소설이나 에세이류에 비해 아직도 판매량이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역시집출판은 '이중고'를 안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 민음사 '세계시인선'을 맡고 있는

정홍수 편집부장의 말.

이와함께 번역시집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번역자의 역량과 작가선문제들을 들 수 있다. 비교적 알려진 작가의 경우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충실한 번역과 해설까지도 가능하지만 현대시인들이나 제3세계권 작가들의 작품들은 아직도 이중번역과 직역에 가까운 거친 문장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인데 번역시의 어색함과 생소함은 독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일반적인 '장애물'. 이러한 문제는 곧바로 번역시의 시장성에도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량있는 시전문 번역가와 학계의 관심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외국문학 전공자들의 번역시에 대한 관심은, 작가선정에 있어서도 독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감상적 서정시류에 치중한 그간의 '메뉴'에서 탈피하여 보다 수준높은 외국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나름의 성실한 기획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시리즈물이나 단행본들을 선보이고 있는 출판사들은 차츰 전문 독자층을 형성하면서, 불투명한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사명감'으로 새로운 작가를 선보이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연 기자

국내최초공개!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아)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도서주문 진명서적 : (02) 272-5871
을지서적 : (02) 757-8991

시 어 사 대표전화 : (02) 549-6817
F A X : (02) 549-6816

독자 여러분 **신비한 UFO** 비행음을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들어 보세요.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시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아)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 N. TV에서 농부(마이아)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 이야기! 사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아) 이야기—

- 주요목차 ●
- 농부(마이아사건)의 충격 ●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 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 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 탄생의 비밀 ● IBM보오겔 박사의 증언 ●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가 오시아 역을 ● 정우인 옮김 ● 사진제공 농부 마이아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 신국판/242면/값3,500원